

序

自然은 人間과 萬物을 生育하며 人間은 上古時代로 부터 文化와 歷史를 創造하면서 悠久한 歲月이 흐르는 동안 人類史에서 는 그 많은 氏族들이 榮枯盛衰를 찾아볼수있다 그中 永久不變한 것은 바로 人間族血이 繼承이라 할수있다 宇宙上의 모든 萬物은 各自의 系譜가 있으니 人間의 系譜는 血統으로 繼承하고 있으며 花草는 同色同類로 譜를 가지고 禽鳥類는 그母를 反哺하므로 그系乘을 삼고 서문고와 마두의 族譜는 動靜運機로서 譜를 삼고 人間의 譜는 同姓同貫으로 家族의 系統을 記錄한것 이라 그러므로 우리 全州李氏는 始祖司空公으로 부터 列聖王朝의 肇系가 繁茂하여 東邦의 巨姓大族으로 子姓들의 國內外에 散處하는者 數百萬에 이르고 있다 더욱 옛禮法에 帝王은 不敢其祖라 하여 王子이신 大君과 君을 分派始祖로 하고 昭穆의

次例로 系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璿源先系로 부터 繼承하
 여 安昌大君(穆祖大王第五子)을 派祖로 創譜함이며 더욱 우리
 先人들은 列聖朝의 아름다운 德行과 孝 慈 睦 仁의 道에 至
 誠한 餘慶으로 璿源寶籙 國史에 記載되고 子孫들은 文武로 卿
 相이 되며 그 勲業이 國乘에 記載 聖血을 이어받은 後孫들은
 기리기리 그 功德과 事蹟을 讚揚하면서 傳承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程夫子가 이르시기를 「人倫을 밝히며 風俗을 厚하
 게 함은 修譜와 같음」이다 하였고 蘇老泉이 이르시기를 「行列을
 重히 여기며 賢聖을 分下함은 合族함과 같음」이다 하였고니
 眞實하다 이 말이며 俗語에 同姓同本은 百代至親이라 말했은즉
 한 血統의 子孫으로서 系統을 알지 못하여 路上行人 아닌 路上行
 人과 같이 되고 있는 例가 許多하다 그리하여 西紀一九〇〇年
 (庚子年) 勅命으로 刊行한 譜를 基本으로 敢히 修譜하는 바

다 刊行함에 있어 다만 이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섭섭함은
 두고온 故郷에 계시는 많은 族親과 함께 修譜하지 못하는 점이
 千秋의 恨이로되 名單만이라도 收錄하는데 努力하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南北이 統一되어 우리의 譜가 編修될 때에는 이 譜가
 반드시 必錄의 地位를 確信하는 바이다 다만 安昌大
 君子孫으로써 先人들의 國家社會各分野에서 貢獻한 事蹟을 아로
 색여 기리 기리 간직함과 同時에 祖先을 尊慕함과 族親을 親
 睦케 함이 缺缺부터 不足한 것이 아니라 더욱 深篤함을 더하여
 써 오늘날의 修譜하는 뜻에 맞추어 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修譜
 에 河東人 月泉 鄭桂順先生의 協力에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西紀一九七八年戊午二月 日

서을에서 後孫 潤日 謹記

睿源系譜紀略序

御製

上繩祖烈下詒孫謨旁親
九族由近而及遠聖人之
道如斯而已斯道也得諸
心行諸躬無待於外也然
而祖系也孫支也九族之

派列也咸具於譜即其譜
而思其道則亦必感於心
而有補於躬行此古人所
以重譜牒而為人君者尤
不可忽也是故適追先休
謂之孝啓佑後人謂之慈

惇宗收族謂之睦舉而措
之百姓黎民謂之仁尊統
系明昭穆辨親疎而該故
實謂之典禮譜也者典禮
之所著而孝慈睦仁之所
資而行者也豈直為攷据

而已哉惟我 璿源紀略

始成於 肅廟己未歷

景廟 先大王上下百餘

年增修者蓋屢矣其於統

系昭穆固已致嚴而近代

之外裔曾玄靡不畢錄

列朝之徽稱盛舉亦皆謹
書斯無憾於典禮矣若乃
孝慈睦仁之道聖神相
承以傳以受純篤宏深薰
和洋溢直可與文武之光
前裕後堯舜之敦叙平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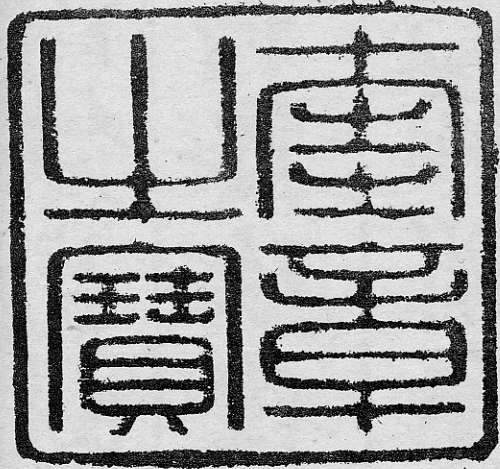
匹美並休則是又譜之所
本而非有資於譜者也不
允盛歟予自嗣服以來凡
有事亦不敢不修譜而於
其道蓋未能焉且以久未
有嗣慄然為懼惟天惟

祖宗眷佑乃今元子生及
建號命有司載諸譜既又
自反曰予不能道吾先王
之道即嗣予者何述焉嗚
呼苟非安行之聖孰有不
勉而中者乎由予而上知

源之遠則思有以孝焉由予
而下知流之長則思有以慈
焉由予而旁及知千柯萬葉
之本乎一根則思有以睦焉
又由茲以推知八域之為一
家而萬姓之為同胞也則思

有以仁焉既思之又必行之
俛焉日孜孜雖不中不遠矣
是則所謂資於譜之術也敢
不勉與譜舊無序遂書此弁
卷既以自勉且以為後嗣王
勉若其為書之詳凡例及前

後跋文在茲不復贅云予小
子嗣服之七年癸卯孟春上
元拜手謹序



璿源系譜紀略序

正祖親製

위로 祖宗의 빛나는 功業을 繼承하고 아래로 子孫에
게 아름다운 法度を 물려주며 旁親과 九族이 가까운
데서 먼 데에 이르고 있다 聖人の 道가 이와 같을 따
름이다 이 道는 마음에 얻어서 몸으로 行할 뿐으로
그 밖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祖宗의 系統과 子孫의 같
래와 九族의 分派 序列이 모두 譜에 갖추어져 있으니
그 譜를 보고 그 道를 생각한다면 또한 반드시 마음
에 느껴서 行實에 도움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
이 사람이 譜牒을 所重히 여기던 바이다 남의 君主된
者는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先祖의 美德을 追崇하는 것을 孝라고
이르고 後孫을 바른길로 啓發하는 것을 慈라고 이르고

宗族을 거두어 親愛하는것을 睦이라고 이르고 이같은
道理를 옹거서 百姓위에 酌는 것을 仁이라고 하고 系
譜를 높이고 昭穆을 밝히며 親疎를 分別하여 옛날의
法度에 맞게 하는것을 典禮라고 한다 譜라는 것은 典
禮를 밝게 나타나는 것이며 孝 慈 睦 仁 네가지의
美行을 바탕이 되어 行하여지는 것이다 어찌 홀로 孝
證의 根據가 될 뿐이겠는가

삼가 헤아리건대 우리의 璿源紀略은 肅宗 己未年에
비로소 이루어져서 景宗과 先大王을 거쳐 이제에 이르
기 까지 百餘年이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번의 增補 修
正을 거치였다 그 系統과 昭穆을 엄밀히 밝혔음은 勿
論 近代에 이르러 外裔와 먼 子孫에 이르기 까지 도
갖추어 記錄하지 않음이 없으며 列聖朝의 아름다운 德

行과 盛大한 事業을 또한 모두 삼가 記錄에 올렸으니 眞實로 典禮
에 유감될 것이 없다 孝慈睦仁의 道에 이르러서 聖明睿知하
신 列祖께서 서로 繼承하시어 傳하고 또 받으셨으니 純粹하시고 篤實
하시고 넓고 또 깊으셨으며 和氣가 넘쳐 흐르셨다 곧 옛날 周나라
文王 武王이 前代를 밋내고 後孫을 啓導한 일 堯舜이 九族
을 敦叙(차례를 定하고 親睦을 圖謀하여 人倫을 밝힌 것)하고
百姓을 平章(公平하고 밝게 다스리는 것)한 일 등 네가지 美德으
로 더불어 아름다움을 함께 하였다 이것은 또한 譜의 根本이 되
는 것으로서 譜에 힘입은 것이 아니다 더욱 盛大한 일이 아니겠는
가 내가 王佐를 이미 맞은 뒤로 무릇 일이 있을면 또한 감히 譜
를 撰修하지 아니치 못했으나 그 道에 있어서 는 能히 이를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오래도록 後嗣가 없어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참치
못하였다 하물이 돌보시고 祖宗의 靈이 도우시여 이제 元子가

나고 位號를 定하기예 (元子冊封) 이르러 有司에 命하여 譜에 실리게 했다 그리고 또 스스로 反省하여 말하기를 내 能히 우리 先王의 道를 行하지 못하면서 나를 繼承할 者에게 무슨 말을 하랴 아아 眞實로 安行 (힘쓰지 않라도 모든 行動이 저절로 道理에 맞는 것) 의 聖人이 하나고서야 能히 힘쓰지 않고서 道에 맞을 자가 있겠는가 나에서부터 위는 根源이 멀을 알므로 慈를 생각하며 나에서부터 旁系는 千阿枝와 萬葉이 같은 百里에 바탕을 두었음을 알므로 睦을 생각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八域이 한 집안이 되고 萬姓이 同胞가 됨을 미루어 앞으로 仁을 생각하게 된다 이미 생각 했으면 또 반드시 힘써 행할 것이다 나로 부지런히 힘쓰는다면 비록 道에 的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譜에 이마지하는 方法이다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舊譜에는 序文이

없었기로서 첫째 卷에 이를 쓴다 이미 스스로 힘쓰고 있으며 또 뒤의 嗣
王으로 하여금 힘쓰도록 한다 다만 譜牒의 詳細한 것은 凡例와 前
後 跋文이 여기에 있으니 면거롭게 더 말하지 않겠다

予小子가 王子를 繼承한지 七年되는 癸卯年 孟春 上元에 삼
가 序文을 쓴다

高宗命製璿源續譜序

氏族의 譜가 後世에는 있었으나 三代에는 없었으니 姓으로써 百世의
正統을 系하고 氏로써 子孫의 旁出을 別하나 族은 氏의 모은 것따
름이다 譜는 그의 宗을 譜한 것이니 宗의 譜가 있음은 나라에 史 있
음과 같다 周의 世에 列國의 史가 있지 아니함이 없었고 史는 周나
라에 繫치 아니함이 없었다 그런故로 列國의 史는 다 周나라의 史
나 합하면 傳이 되고 分하면 語가 되어 傳을 經에 부침은씨 統
을 보임이요 語를 國에 붙임은씨 派를 보임이다 집에 大宗이

있음은 共主와 같으니 그의 支分과 派別이 모든 小宗이 됨은
또한 列國의 類라 하겠다 周官에 氏族의 志를 官府에 掌하니
漢나라에는 序錄이 있고 晉나라에는 圖牒이 있으니 大蓋 譜의 비
릇되는 바이다 隋唐에서는 圖譜局을 創設하였고 知譜事を 設置
하여 祕閣에 감추고 副本은 尤戶에 있었으니 譜의 이름이 비로소
大備하여 歷代에 因하였다 恭惟하느니 우리 國朝가 濬沅에 發祥
하여 奕葉과 重光이 구슬이 寶系에 聯하였고 바다가 昌源에 沉하
여 璿源錄과 璿源系譜紀와 略紀續編이 있어 이로써 王系를 登載하
고 旁支는 王子以下 五世에 그치니 五世以下는 또 十代錄이 있어
現錄한 諸書를 加하였다 孝宗乙未年에 璿源寶閣을 세우고 肅宗
癸酉年에 奎章閣을 建立하여 扁額을 御書로 하여 尊閣을 하니
宋世에 해마다 仙源積慶圖와 宗藩慶緒錄을 써서 龍圖 天章 寶文閣
에 보내는 것으로 더불어 그 義가 한가지이니 어찌 그리 盛大한고!

哲廟가 在宥에 宗人을 命하여 本支譜系를 會粹하여 彙類로 一書
를 만드셨으며 聖上께서 御極을 함에 志事를 追述하셨고 大院
君이 實로 編摩의 役事를 摠裁하여 同源分流한 感을 永歎하고
聚族敦宗의 誼를 深念하셨다 그 義例는 皇明의 宗人府가 皇九
族의 屬을 掌하여 宗室의 子女의 名封과 嗣襲하는 일을 模倣
하였으며 또 仔細함을 더하셨다 健元陵以下の 王子는 八十一派
로 定陵以上の 先公과 先王의 孫枝는 二十派나 다 七萬餘人이며
책은 무릇 三百卷이니 八燧를 지내어 功이 竣함을 告할새 弁卷의
를 드시어 臣錫禧를 命하시니 臣이 두려워서 敢히 辭讓치 못하고 삼
가히 拜手頓首하고 颺言하여 이르기를 氏族의 說에 載은者는 齊
家하며 治國함에 그 掌을 보는 것과 같다 하겠다 周禮에 小史가
繫世를 定하며 昭穆을 辨함을 掌하니라 始祖가 正姓이 되고
高祖以外에 사람이 輒轉하여 廣遠하고 分姓이 衆多한 故로 庶姓

이 되고 庶姓이 上에 別하니 戚이 下에 準한지라 이에 親疎가
形하고 等威가 生한지라 孔子 이르시기를 「愛를 호함은 親으로
부터 비롯하니 백성에게 敦睦함을 가르친 것이요 敬을 호함은 長
으로부터 始하니 백성에게 順從함을 가르친 것이다」라고 하
시고 또 이르시기를 「閨門의 안에 禮가 있는故로 三族이 和睦
하니 三으로써 五가 되고 五로써 九가 되는지라 帝典에 車章
과 協和가 實로 以 親九族에 原하였고 文王의 家邦을 御함은
大蓋 刑于寡妻에 비롯하였으니 이 道를 이루어 써가면 집에 쓰
면 집이 닦여지고 나라에 쓰면 나라가 다스려지나니 其至德과 要道
는 다 못가로되 孝悌나 人心의 所同이요 반드시 人人을 教詔한
것이 아니다 그런故로 몸에 考하고 庶民에 徵하면 聖人の 能
事가 다한 것이다 우리 殿下께서 人倫을 다하는 聖人으로써 惇
典의 政聲을 懋하고 博大的 治跡을 闡함이 備푸는 것이 親親으

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다 이 族譜는 禮經의 大宗小宗의 法과 漢
書의 侯王 年表의 凡例에 折衷하여 卅次와 部居가 燦然히 精
畧되어 王系의 아래에 并繫하였으니 옛 列國의 史가 周나라에
統하여 熙世一王의 制度가 萬子孫에 이르러 終이 衰替함이 없
음과 같으니 於乎徽哉며 於乎懿哉로다 唐나라 六典을 謹按하니
九廟의 子孫이 그의 族이 五十有九요 玄宗時에 있어 이미 七
族이 있었으니 만약 그의 歷世가 滋多하면 九에 不止함이 있
을 것이니 椅歟라 聖朝의 天潢이 멀고 먼지라 宗姓이 綿綿하여
五十九族의 比較함에 그치지 아니하면 그의 篤敬衍休가 능히
厥後를 昌大케 하는 盛함을 또 可히 쓰지 아니치 못하겠다

丁卯三月 日

資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兼藝文館提學臣 申錫禧 奉教撰

資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臣 李興敏 奉教書

全州李氏安昌大君全海君子孫錄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安昌大君 梅佛

子 東淮 栢

子 密溪 賢

子 全善 天

子 成佑

子 碩老

穆祖大王第五男

孝恭王后平昌李

氏誕生

麗朝行禮憲寺直

長 戶曹典書

高宗九年壬申七

月十六日永禧殿

酌禮時傳曰四王

子孫中當為封爵

而未封爵者全宗

府湖考依法興舉

行其外如有封爵

者一体舉行事分

仕以特命追封大

君領宗正卿府事

龍封四世贈君

墓壇在咸州郡興

南邑雲城里燕串

洞辛原

娶佐未詳

贈通政大夫

高宗壬申追封

君宗正卿

娶高夫人密陽朴氏

墓拜失傳云

贈嘉善大夫

高宗壬申追封

君宗正卿

娶高夫人新安朱氏

墓失并傳云

洪武甲辰生

族校衛嘉善大夫

高宗壬申追封

君宗正卿

娶高夫人清州韓氏

父光連

墓雲田面燕串洞

乾原村有碣

通政忠佐衛副摠

制 高宗壬申追

封君宗正卿

墓上同

娶密陽朴氏父天守

墓村

成成生 啓功郎

墓雲田面松風洞

乾原

娶清州韓氏父光協

墓村

子 完昌

青

子 得實

子 未屹

東河 柱

全順 舒仁

完興 寶林

桂夏

子 禎植 (新泉郡)

子 禎賢 (興寧邑)

子 禎輔 (咸州郡)

嘉善大夫仁忠佐
衛副摠管贈資成
事 高宗壬申七
月十六日追封君
宗正卿府事 墓
咸州郡雲南面興
南里伐塲洞
娶新安朱氏
墓上同并失傳云

嘉善大夫行知密
直司事 高宗壬
申七月十六日追
封君 宗正卿府
事 墓上同
娶高夫人新安朱氏
墓村有兩後龍室
墓雲南面雲上里

洪武甲辰生
族校衛嘉善大夫
高宗壬申追封
君宗正卿
娶高夫人清州韓氏
父光連
墓雲田面燕串洞
乾原村有碣
通政忠佐衛副摠
制 高宗壬申追
封君宗正卿
墓上同
娶密陽朴氏父天守
墓村
成成生 啓功郎
墓雲田面松風洞
乾原
娶清州韓氏父光協
墓村